

상담자 태도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권 회 경

고려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의 목적은 포괄적인 상담자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심리측정적 성질을 탐색하는 것이었다. 훈련된 평정자들은 5분 단위의 171개 단락에 대하여 8개 문항의 상담자 태도를 평정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 척도의 평정자간 신뢰도(r)의 범위는 .72~.90로 상당히 높았다. 요인분석 결과, '비판-존중 요인'과 '정서적 공유 요인'의 두 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리고 태도 문항들과 작업 동맹과의 관련성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가 비판적이기보다 존중적 태도를 지닐수록, 그리고 내담자의 정서를 공유할수록 내담자는 상담자와의 유대감을 더욱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이 척도의 요인구조가 지니는 의의와 앞으로의 연구과제가 기술되었다.

상담 및 심리치료는 내담자의 상실된 신뢰를 회복시키는 하나의 수단이며 과정이다(정방자, 1998). 내담자는 상담자의 태도를 곧 바로 지각하여, 상담과 상담자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상담자의 태도는 긍정적인 상담관계의 형성을 위해서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중요하다. 특히 인본주의적 접근은 '상담자가 제공하는 상담 조건'으로서의 상담자의 태도가 관계형성과 성과

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제까지 상담자 태도에 관한 경험적인 연구들은 주로 치료자의 공감, 수용성 그리고 일치성과 같은 촉진적 조건들에 한정 되어 연구되었을 뿐 (Truax, 1963; Truax & Carkhuff, 1967; Truax & Mitchell, 1971; Bergin & Suinn, 1975), 아직까지 포괄적인 상담자 태도들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상담자 태도를 측정하는 도구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담 과정과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담자 태도 요인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밝히기 어렵다. 가령, 1980년대에는 작업 동맹(working alliance)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상담자와 내담자의 작업 동맹은 상담 성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나(Hartley & Strupp, 1983; Horvath & Greenberg, 1989; Morgan, Luborsky, Crits-Christoph, Curtis, & Solomon, 1982), 이론적으로 중시되고 있는 상담자의 태도가 실제로 관계형성과 동맹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는 전혀 연구되지 못하였다.

따라서 상담자 태도가 상담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측정 도구의 개발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상담실정에 적용하기 쉬운 신뢰롭고 타당한 상담자 태도 척도를 개발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고자 한다.

1. 상담자 태도에 대한 이론적 견해와 경험적 연구

인본주의적 상담에서는 상담자의 지식, 이론 또는 기법보다는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의 성격 변화를 촉진시킨다는 가설을 기본으로 한다(Corey, 1998). Rogers(1957)는 치료자에 의해 제공되는 무조건적 존중성, 공감적 이해 그리고 일치성은 내담자의 긍정적인 성격 변화를 위해 '필요하며 충분한 조건'이라 하였다. 이러한 태도들은 내담자로 하여금 방어적 태도를 포기하게 하고,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서 자신의 문제와 모습에 대한 더 깊은 탐색과 통찰을 일으키게 한다.

이러한 치료자 자질과 태도에 대한 Rogers의

절대적인 강조는 치료자의 기법과 내담자 요인을 너무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았다. 한 예로, Strupp(1973)는 Rogers의 주장을 부분적으로만 수용한다고 하면서, 상담자의 '좋은 인간적 관계'는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하긴 하지만 이것 자체로서 충분하지는 않으며, 이러한 주장이 모든 내담자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정신분석적 치료자들은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우호적이고 따뜻하고 대등한 상대자로 있기 보다는 전문적인 치유자의 역할을 유지하고자 한다. 초기에는 전이의 조장과 해결을 위하여 치료자의 중립성이 보다 강조되었으며(Corey, 1998), 최근의 정신 역동적 접근의 치료자들은 치료적 동맹(therapeutic alliance)을 중시하게 되면서, 더 수용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강조하였다(Luborsky, 1984; Dewald, 1974; Greenson, 1967; Zetzel, 1956). 또한 Alexander(1963)에 따르면 내담자의 교정적 정서 경험(corrective emotional experience)을 위해서는 치료자의 공감적이고 허용적인 분위기의 창출이 필수적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치료자 태도를 바라보는 견해에서 정신역동적 접근의 치료자들은 인본주의적 접근과는 달리, 치료자의 공감적 태도는 환자의 탐색적 과정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것일 뿐, 변화의 본질적 요소는 아니라고 한다.

행동 치료와 인지 행동적 접근에서는 치료자의 태도는 기법에 비하여 치료효과의 부차적인 요인으로 간주한다. 즉 Wolpe(1973)와 Eysenk(1952)와 같은 행동주의 치료자들은 잘 계획된 치료기술이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성공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치료 관계나 치료자의 자질 등은 반드시 필요조건은 아니다.

그러나 이 말이 치료적 태도를 무시한 채로 기계적으로 기법을 적용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Wessler와 Wessler(1980)는 Rogers의 치료적 조건에 동의하면서, "우리도 또한 내담자 변화를 위해 이 조건들이 중요하다고 믿는다. 이 조건들은 비지시적 상담에서 뿐만 아니라 지시적 상황에서도 의미가 있다. 만약 이런 조건들이 내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어떤 기법도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Goldfried(1982)도 치료자의 태도와 치료적 관계는 기법(숙제부과, 노출치료, 역할시연 등)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매우 필요한 요인이라 하였다. 따라서 정신역동적 접근과 마찬가지로, 인지행동적 접근에서도 치료자 태도를 변화의 본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지만, Rogers의 치료적 조건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이론적 접근에서는 치료자 태도를 강조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소 다른 견해를 갖지만, 관계형성과 상담 성과를 위해서 상담자들은 보다 수용적이며, 긍정적이고 공감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일치한다. 이를 지지하는 한 연구로, Fisher, Paveza, Kickertz, Hubbard 및 Grayston(1975)는 실제로 각 이론들을 지향하는 치료자들이 상담에서 취하는 기본적인 태도가 서로 다른지를 알아보았다. 이들은 인본주의적, 정신역동적 그리고 행동적 치료자들의 공감성, 온정성, 그리고 진실성 정도를 평가하여 비교한 결과, 인본주의 치료자들이 3개 차원의 점수에서 약간 더 높은 경향을 보이긴 했지만 세 집단의 치료자들의 치료적 태도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이것은 이론적 입장과 관계없이 치료자들은 기본적인 치료태도를 지니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trupp와 Hardley (1979)는 통제된 연구에서

상담자 기법에 비해 상담자의 관계 형성 능력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공감적이고 배려 깊은 관계 형성을 잘하는 교수와 특정한 전략과 기술을 사용하는 전문적 상담자에게 20회기의 상담을 진행하게 한 뒤, 그들의 치료효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성과에서 두 집단 간의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들의 결과는 다소 논란이 있을지라도, 상담자의 자질과 관계형성의 능력은 기술에 비해 더 중요한 변인임을 경험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또한 상담 기법에 치중하게 될 때 상담자 태도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를 수 있음을 밝힌 연구로, 상담 기법을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경각심을 주는 연구가 있다. Henry, Schacht, Strupp, Butler, 및 Binder(1993)는 실험에 참가한 상담자들에게 단기 우울증 심리치료를 위한 치료 지침서를 가지고 훈련을 시켜, 훈련 전후의 상담자의 기술과 태도 변화를 살펴보았다. 훈련 전과 비교할 때, 상담의 기술에서는 진전이 있었으나 상담 태도에서는 더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즉 치료 지침의 훈련 후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더 탐색적이며 더 초점적으로 된 반면에, 태도에서는 덜 지지적으로, 덜 승인적으로 그리고 더 권위적이며 더 방어적인 경향성이 드러났다. 이 결과는 상담자가 기법에 대하여 집중하게 될 때, 상담 태도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기 쉽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치료자 변인과 작업동맹의 관련성에 대한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상담자의 태도가 내담자와의 관계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가령, Dunkle과 Friedlander(1996)는 73명의 상담자를 대상으로 자기로 향한 적개심, 지각된 사회적 지지감, 그리고 애착에 대한 편안감의 정도를 측정하고

3. 5회기 이후 내담자에게 작업동맹 질문지를 실시하였다. 예견한 바와 같이 3개의 상담자 개인적 특성은 내담자의 작업동맹의 연대감 요인하고만 유의한 상관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치료자의 개인적 특성과 역사는 치료적 관계에 이전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치료적 관계에 대한 내담자의 지각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들(Orlinsky & Howard, 1986; Bordin, 1979)과 일관된 맥락에 있다. Connor-Greene (1993)도 작업동맹의 수준이 낮은 것을 단지 내담자의 특성 변인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치료자 요인을 고려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내담자의 작업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상담자 태도 요인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연구들은 아직 없는 상태이다.

결론적으로, 상담자 태도는 이론적 접근을 불문하고, 어떤 다른 요인보다도 내담자와의 관계를 신속히 구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그리고 상담 기법을 효율적으로 적용시키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상담 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라 할 수 있다.

2. 상담자 태도의 측정문제와 연구목적

초기의 상담자 태도에 관한 연구는 성과에 기여하는 기법과 태도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밝히려는 연구 패러다임에서 진행되었기 때문에, 치료자 태도를 포괄적이며 직접적으로 연구하기보다는 주로 치료자의 공감과 촉진적 조건들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Truax와 Carkhuff(1967)는 공감, 무조건적 존중, 그리고 일치성과 같은 촉진적 조건들을 측정하는 척도를 제작하고, 이러한 조건들은 치료 성과에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후 많은 연구들(Truax, Mitchell, 1971; Altman, 1973; Banks, 1972; Jones,

Wynne, & Watson, 1986, 등)은 공감 및 촉진적 조건들과 성과와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였으나, 또 다른 연구들(Parloff, Waskow & Wolfe, 1978; Beutler, Johnson, Neville, & Workman, 1972; Garfield & Bergin, 1971)은 두 변인간의 관련성을 검증하지 못하여 서로 비일관된 결과를 나타냈다. Lambert와 Bergin(1992)도 공감은 심각한 심리적 문제를 지닌 사람보다는 오히려 가벼운 문제를 가진 내담자들의 치료성과와 더 관련이 된다고 하면서, 부분적인 공감의 효과만을 지지하였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공감을 중심으로 한 촉진적 조건에 관한 연구들은 상담자의 태도와 자세에 대한 중요성을 시사하지만, 이것은 상담자 태도 연구에 적용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이들은 다양한 치료자 태도들 중에서 극히 한정된 일부분의 태도이기 때문에, 상담에서 흔히 드러나는 부정적인 태도의 영향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상담자의 부정적인 태도는 상담 과정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한 연구들이 있다. Patterson과 Forgatch(1985)는 아동 문제를 지닌 부모를 교육하는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한 집단원들의 저항 수준과 치료자 지시성 반응의 관련성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치료자가 가르치고, 지시적이고 직면적인 반응을 할 때, 저항이 증가한 반면에 지지적이고 촉진적인 개입을 할 때 저항의 정도가 감소하였음을 발견하였다. 개인 상담 내담자를 사용한 조성호(1997)의 연구에서도 상담자의 지시성은 내담자 저항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상담자의 지시적, 강의적 태도는 상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말해준다.

이상과 같이, 상담자 태도의 부정적 측면도 상담 과정과 성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상담

자 태도의 연구에서 태도의 부정성과 긍정성에 대한 동시적인 고려는 매우 중요하다. 가령 상담자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부정적인 태도를 드러냈다면 긍정적인 태도는 그 효과가 발휘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한 치료의 촉진적 조건과 성과와의 관련성에 대한 비밀관된 결과들은 상담자의 긍정적인 태도들은 비슷한 수준이었을지라도 부정적인 태도들의 수준은 서로 차이가 있었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최근 들어 O'Malley, Suh, 그리고 Strupp (1983)는 총 80문항의 밴더빌트 심리치료 과정 척도(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이하 VPPS라 칭함)를 개발하였는데, 이 척도는 심리치료의 과정을 보다 광범위하고 일반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도구로, 문항의 요인 분석 결과, 8개의 하위요인들이 추출되었다. 이 중, 치료자 요인으로는 탐색 요인과 부정적 태도 및 온정적 태도가 있다. 치료자 변인들 중 치료자의 탐색 요인은 주로 기법적 측면이며, 치료자의 부정적 태도와 온정성 요인은 주로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태도를 재고 있는데, 이로써 치료자의 태도들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

VPPS의 기본 특징은 심리치료 과정을 일반적이고도 광범위하게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료자 태도 요인의 문항들도 부정적이거나 온정적인 태도와 같은 전반적인 측면의 태도를 측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상담 과정과 성과에 미치는 상담자 태도의 영향을 보다 면밀히 살피기 위해서는 좋고 나쁜 정도의 전반적인 상담태도보다는 구체적인 그리고 보다 임상적 의미를 지닌 세부적인 태도들을 측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VPPS의 치료자 태도 문항들이 전반적인 태도만을 측정하는 문제들은 척도의 타당도에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실제로 VPPS의 타당도 연

구에서 유독 상담자의 태도요인과 성과는 유의미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못함으로써(Gomes-Schwartz, 1978; O'Malley, Suh, & Strupp, 1983; Sandall, 1983), 아직 VPPS의 치료자 태도 요인의 문항들이 타당하게 상담자 태도를 재고 있음이 확인되지 못한 상태이다. 또한 이 척도의 치료자 태도문항들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는 온정성 요인과 부정적 태도 요인이 각각 $r = .86$ 과 $r = .79$ 로, 꽤 높은 수준으로 보고되었다(O'Malley, Suh, & Strupp, 1983). 그러나 Rounsaville, Chevron 및 Prusoff (1987)의 연구에서는 VPPS의 치료자 태도의 평정자간 상관성이 온정성과 부정성 각각에서 .75와 .56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O'Malley, Suh, 그리고 Strupp(1983)의 신뢰도 수준보다 훨씬 낮은 것이었다. 이러한 비밀관된 평정자간 신뢰도 결과는 VPPS 치료자 태도 문항들의 신뢰도 부분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음을 말한다. 이에 본 연구자와 상담자 1인이 VPPS 치료자 태도 평정 매뉴얼을 충분히 숙지한 뒤 실제 상담 사례로 예비평정을 해본 결과, 평정 과정에서 빈번히 평정자의 주관성이 개입되어 평정 일치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것의 주된 이유는 태도 문항들의 정의가 모호하고, 문항들간의 내용이 중복되었으며, 특히 평정을 위한 세부지침이 없다는 점으로 설명될 수 있다. 가령, 47번 온정성 문항은 "내담자를 향한 온정성과 우호성을 드러낸다. 즉 이것은 치료자가 내담자에게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쟀다. 우호성은 적대감이 없는 친근한 태도를 포함한다"라고 정의되어있다. 그러나 치료자의 어떤 태도와 행동을 온정적이고 우호적이라 하는지 그 조작적 정의와 그 세부적 준거들이 제시되지 않아 다분히 평정자의 주관성이 들어가기 쉬웠다. 이러한 문제는 총 15문항들 중 다수의 문항에서 발견되었다.

따라서 VPPS의 치료자 태도 문항들은 좋고 나쁜 정도로 상담의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태도들은 측정하나,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구체적인 태도들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하며, 또한 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한 정의가 불분명하며, 세부지침들이 없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아직까지 VPPS를 제외하고는 상담자 태도를 분류하거나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전혀 없으므로, 상담자 태도가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경험적으로 연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보다 신뢰롭고 타당한 척도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자 태도 척도를 구성하고, 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하는 데 있다. 구체적인 연구 절차는 다음과 같다:

- 1) 각 태도 문항들에 대한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한다.
- 2) 구성 타당도 연구의 일환으로 요인 분석을 실시하고, 확인된 요인 구조가 문헌에서 언급되는 상담자 태도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 3) 준거관련 타당도의 검증을 위해 상담자 태도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상담 관계의 질과 관련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내담자의 작업 동맹 요인들과 상담 태도의 관련성을 검증한다.

방 법

1. 측정도구

1) 상담자 태도 척도

상담자 태도 척도는 상담자 태도를 중요하게 언급한 이론적 문헌들(Rogers, 1957; Greenson,

1967; Streat, 1985; 윤호균, 1983)과 실제 상담 사례를 수록한 문헌들(Rogers, 1957; Corey, 1984), 그리고 VPPS의 치료자 태도 문항들을 토대로 하여 8개의 태도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문항 구성의 절차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① VPPS에 포함되어 있는 태도 문항들 중에서, 충분히 임상적으로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명백하게 태도를 재는 문항이라고 판단되는 문항들을 6개 추출하였다. 부정적인 차원에서는 판단적 태도와 강의적 태도를, 긍정적 차원에서는 공감적, 온정적, 수용적, 존중적 태도들을 선택하였다. ② 다음으로 상담 과정에서 흔히 드러날 수 있는 부정적인 상담자 태도들을 2개 더 첨가하였는데, 그 하나는 불안정하고 불투명한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내담자에게 몰입하지 않고 떨어져 있는 비몰입적 태도이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선정된 문항은 다음과 같다: 부정적인 측면으로 강의적 태도, 판단적 태도, 불안정한 태도, 비몰입적 태도가 있고, 긍정적인 측면으로 공감적 태도, 온정적 태도, 수용적 태도 그리고 존중적 태도가 있다. ③ 문항의 구성에서 특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일관된 평정을 위한 세부 준거들의 작성이었다. ④ 8개 문항에 대한 정의를 토대로, 각 문항에 해당될 수 있는 상담자의 외현적인 태도나 반응들 그리고 언어적 유형과 내용들을 설명적인 용어로 기술하였고, 한 문항 당 세부준거들은 평균 4개 혹은 5개로 하였다 <부록 참고>.

이 척도는 평정자에 의해서 녹음테이프와 축어록을 이용하여 평정된다. 각 문항은 0점부터 4점까지의 Likert식 5점 척도로 평정된다. "0점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은 약간 그렇다, 2점은 보통이다, 3점은 꽤 그렇다, 4점은 상당히 그렇다"로 명시되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대한 태도가 더 많은 것을 의미한다.

2) 작업 동맹 질문지

작업 동맹 질문지(Working Alliance Inventory)는 상담자와 내담자간의 작업 동맹을 목표 합의(goal), 과제 동의(task), 및 유대의 세 요인으로 나누어 개념화한 Bordin(1979)의 이론에 기초하여 Horvath와 Greenberg(1986, 1989)가 개발한 36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각 요인은 Likert식 7점 척도로 된 12문항으로 구성된다. 이 질문지는 평가자의 유형에 따라 내담자용, 상담자용, 그리고 관찰자용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내담자용을 사용하였다. 강혜영(1995)은 내담자용 작업동맹 질문지의 내적 합치도 계수를 .92로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각 내담자에 대해 작업동맹 질문지를 3회기 직후에 한번 실시하였다.

3) 간이 정신 진단 검사(SCL-90-R)

SCL-90-R(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은 개인들이 호소하는 임상 증상을 9개의 하위차원에서 측정하는 90문항의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다. 이 척도는 각 하위척도별로 점수가 계산되기 때문에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 증상들을 증상의 각 유형별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반적인 정신병리의 심각도, 장애의 수준, 또는 증상의 강도 등에 관한 세 개의 전반적 지표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 참여한 내담자들의 전반적인 정신병리의 심각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상담 시작 전에 한 번 측정하였다.

2. 내담자

내담자는 남자 7명 여자 21명으로, 대학 상담소 및 사설상담소를 자발적으로 방문한 총 28명으로 구성되었다. 1명은 40대초반의 대졸학력의 가정주부였으며, 4명은 대졸의 직장인이었으며,

나머지는 모두 대학 재학생들이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6세였다. 내담자의 주요 호소문제는 주로 대인관계, 진로 및 적응의 문제였으며, 간이 정신 진단 검사의 전체 심도지수(GSI)의 T점수는 30점-76점의 범위를 지녔다. 70점 이상은 2 사례였으며, 내담자들의 GSI의 평균은 53.5점, 표준편차는 9.88이었다. 상담시작 전에 내담자에게 몇 가지의 질문지에 응답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그에 응하는 사람에 한해서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3. 상담자 및 자료 수집

상담자는 총 9명이었는데, 상담심리전문가 자격증을 소지한 상담자 7명, 자격증을 끝 취득할 상담자 2명으로, 이들 중 남자는 1명, 여자는 8명이었다. 이들은 모두 실제 상담경력이 최소 5년 이상으로 상담자들의 평균 경력은 8년이었다. 상담자들의 이론적 접근은 인본주의적 접근이 2명, 정신역동적 접근이 3명, 그리고 절충주의적 접근(인본주의와 정신역동)은 4명이었다.

상담자들에게는 연구목적은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초기(1-4회기)와 중기(7-13회기) 단계의 각각 한 개 회기의 녹음테이프를 요구하였으며, 또한 3회기이후 내담자 작업동맹 질문지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9명의 상담자들은 조기종결 사례를 포함하여 총 28개 사례의 56개 회기를 제공하였다. 이중 2개 사례는 녹음 불량으로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수집된 사례의 지속여부를 살펴보면, 13회기 이상 지속된 11사례, 10회기에 성공적으로 종결된 2사례, 8-12회기에 탈락된 8사례, 3-6회기에 탈락된 7사례였다.

상담자 태도 평정을 위해서 1시간 짜리 54개의 녹음테이프를 완전 축어록화 하였고 1개 회기는 10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졌는데, 1개 단락은

평균 5분 정도가 되었다. 무선 표집 방법에 의해 1개 회기에서 평정을 위해 취해진 단락은 2개-4개 단락이었으며, 총 171개 단락이 평정에 사용되었다.

4. 평정자와 평정 절차

1) 평정자

4명의 평정자들이 상담자 태도의 평정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상담심리학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현재 상담자로서 활동을 하고 상담지도감독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들의 평균 상담경력은 3년이다. 이들은 두 명의 평정자를 한 조로 하여 두개 조로 나누어 졌고, 두 개 조는 85개의 단락을 각각 평정하였다.

2) 평정훈련

제작된 태도 척도를 사용하여 평정자에 대한 훈련을 실시하였다. 가장 먼저 평정자들에게 상담자의 태도 문항 내용과 평정 방식을 설명하고, 평정자와 연구자들간의 상호 토론과 질문 시간을 거쳐 평정방식에 대한 일관된 시각을 갖도록 하였다. 다음 으로는 실제 사례의 축어록을 읽고 녹음테이프를 들으며 예비 평정의 훈련을 하였다. 1회기의 평정이 끝난 뒤 평정결과를 비교해가면서 평정 방식의 차이점을 줄여나갔다. 연구자가 판단하기에 충분히 평정이 일치 되는 점에서 훈련을 마쳤다. 총 훈련시간은 20여 시간 되었다.

3) 평정 절차

평정자들은 두개 조로 나누어져 서로 다른 사례의 단락을 평정하게 된다. 본 평정에 앞서 평정자들은 내담자들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현재 문제 및 주요 문제에 대한 정보를 읽은 후, 완전

축어록의 내용을 읽는다. 내담자에 대한 이해와 상담의 맥락을 어느정도 이해한 후 평정해야 할 단락에 대해서만 녹음 테이프를 들으면서 동시에 축어록을 읽는다. 1개 단락에 대한 8개 태도 문항을 모두 평정한 뒤, 그 다음 단락을 평정하였다.

결 과

1. 상담자 태도 문항들의 평정자간 신뢰도

54개의 회기들로부터 나온 171개의 상담 단락에 대한 두 명의 평정자들의 저항 평정 결과로 토대로 척도의 각 문항별 평정자간 신뢰도를 구하였다. 평정자간 신뢰도는 171개의 상담단락들에 대한 두 평정자들의 태도 평정 점수의 상관계수를 계산함으로써 구해졌다. 171개의 상담 단락에 대한 두 평정자들의 문항별 태도 평정점수와 이 점수들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상담자 태도 척도의 8개 문항에 대한 평정자들의 상관은 .729~ .902의 범위로 꽤 높게 나타났다. 이것으로 보아 8개 문항에 대한 평정자들의 평정 일치도는 매우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2. 문항들간의 상관

각 문항별 태도 점수들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171개의 상담단락에 대한 두 평정자들의 태도 평균점수를 평균하여 문항들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각 문항들간의 상관의 범위는 -.556 ~ .642로서 문항들은 서로 유의미하고 적절한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태도 문항들에 대한 평정자간 상관

문항	평균 (표준편차)		평정자간 상관(r) ^a
	평정자 1	평정자 2	
1. 강의적	.568(.996)	.604(1.02)	.907
2. 판단적	.988(1.20)	1.03(1.24)	.872
3. 불안정적	.563(.835)	.515(.852)	.822
4. 비몰입적	.747(1.04)	.656(1.00)	.805
5. 공감적	1.00(1.20)	.843(1.01)	.729
6. 온정적	1.53(.836)	1.43(.917)	.734
7. 수용적	1.06(.857)	1.16(.814)	.793
8. 존중적	.855(.574)	.849(.535)	.793

a: 모든 상관은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다.
n = 171개 단락

표 2. 태도 문항들간의 상관

문항번호	1	2	3	4	5	6	7	8
1	1.00							
2	.620**	1.00						
3	.122	.331**	1.00					
4	-.143	-.029	.277**	1.00				
5	-.194*	-.185*	-.185*	-.358**	1.00			
6	-.376**	-.427**	-.347**	-.315**	.525**	1.00		
7	-.410**	-.545**	-.358**	-.249**	.361**	.634**	1.00	
8	-.389**	-.486**	-.277**	-.094	.171*	.496**	.529**	1.00

* $p < .05$ ** $p < .01$ n=171

주. 1 강의적, 2 판단적, 3 불안정, 4 비몰입적, 5 공감적, 6 온정적, 7 수용적, 8 존중적

강의적 태도와 판단적 태도, 그리고 온정적 태도와 수용적 태도간의 상관은 각각 .620과 .634로서, 높은 관련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가 강의적일수록 판단적인 태도도 증가하며, 마찬가지로 온정적일수록 수용적인 태도가 증가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정적 태

도 군에 속하는 강의적 태도와 판단적 태도, 그리고 불안정 태도와 비몰입적 태도간에는 유의미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문항을 구성할 때 문항 1, 2, 3, 4는 부정적인 태도 측면을, 문항 5, 6, 7, 8,은 주로 긍정적인 태도 측면을 측정하고자 하

였는데, 이러한 의도와 일관되게 문항 1, 2, 3, 4 와 문항 5, 6, 7, 8 은 서로 역상관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두 개의 문항군은 서로 대조되는 특성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항 1, 2, 3, 4의 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상담태도는 더 부정적인 경향이 많은 것이며, 문항 5, 6, 7, 8의 점수의 총합이 클수록 상담태도는 더 긍정적인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3. 상담자 태도 척도 문항들의 요인구조

상담자 태도 척도의 내적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171개 단락에 대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였고, eigen 값이 1이상인 요인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요인 수는 2개 였으며 요인 1은 전체변량의 43%를 설명하였고, 요인 2는 전체변량의 18.5%를 설명함으로써 2개 요인은 전체변량의 62% 정도를 설명하였다(표 3 참조).

표 3. 상담자 태도 척도의 요인 구조

문 항	요 인 1	요 인 2
1. 강의적	-.830	.067
2. 판단적	-.849	-.094
7. 수용적	.659	.505
8. 존중적	.694	.251
3. 불안정적	-.249	-.548
4. 비몰입적	-.215	-.816
5. 공감적	.163	.693
6. 온정적	.532	.642
고 유 치	3.466	1.48
설명 변량	43.32	18.5

n=171

본 연구의 요인 분석 결과, Gomes-Schwartz (1978a)의 VPPS의 요인 구조와는 다른 요인 구조를 나타냈다. VPPS의 태도 차원의 문항들은 부정적 태도와 긍정적 태도 요인의 두 요인을 지니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태도 문항들은 하나의 요인에 긍정성과 부정성 태도가 모두 포함된 두 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요인 1에는 강의적, 판단적 태도와 수용적, 존중적 태도가 포함되어, 비판-존중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에는 불안정적, 비몰입적 태도와 공감적, 온정적 태도가 포함되어, 정서적 공유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 결과는 Rogerian의 치료적 조건에 해당되는 존중적 태도와 그에 반대되는 비평적 태도 그리고 공감적 태도와 그에 반대되는 정서적 비몰입 태도가 이 척도에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내용 타당도

제작된 상담자 태도 척도가 충분히 측정내용을 잘 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었다. 먼저 3명의 상담전문가들에게 태도 척도의 8개 문항들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먼저 이들에게 상담자 태도 척도 문항을 제시하고, 다음의 3가지 질문에 대해서 검토할 것을 요구하였다. 첫째, 척도의 8개 문항들은 상담 실제 에서 일어나는 상담자 태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 둘째, 상담 과정에서 관찰과 확인이 가능한 태도인가? 셋째, 임상적으로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는 태도인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응답은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음, 2=약간 그러함, 3=어느 정도 그러함, 4=상당히 그러함, 5=매우 그러함)로 반응하도록 하였다. 각 질문에 대한 전문가들의 응답을 평균한 결과, 질문 1의 평균은 4, 질문 2의 평균은 3.5 그리고 질문 3의 평균은 4.5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각 문항에 대한 세부준거들이 특정 문항의 태도들을 충분히 잘 반영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총 36개의 세부 준거들을 무선적으로 혼합시켜 놓고, 상담 전문가 4명과 상담심리사 1명에게 각 준거들을 8개의 태도들 중 어느 하나에 분류하도록 하였다. 이들의 분류가 서로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Kappa값을 계산하였다. 명명 척도에 대한 2명 이상의 평정자들의 일치율을 구하기 위한 Kappa 지수의 공식(Fleiss, 1992)은 다음과 같다.

(공식 1)

$$k=1 - \frac{\sum_{i=1}^m \frac{x_i(m_i - x_i)}{m_i}}{n(m-1)pq}$$

이 공식으로 계산한 결과, $k = .95$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평정자들이 36개의 세부 준거들을 특정 태도에 거의 일치되게 분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과들은 상담전문가들도 이 척도가 상담자의 태도를 잘 반영하고 있으며, 태도에 대한 정의들도 명료하며, 평정을 위한 세부준거들도 관찰하기 쉽고 그 특정태도를 잘 기술하고 있다고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척도에서 측정하는 상담자 태도들은 내용적으로 볼 때 신뢰롭게 측정할 수 있으며 상담자의 다양한 태도들을 쉽게 변별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 상담자 태도와 작업 동맹

준거 관련 타당도를 검증할 목적으로 상담자 태도와 내담자의 작업동맹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총 28개 사례의 3회기의 문항별 상담자 태도 점수들과 3회 직후에 실시한 내

담자 작업동맹 점수들간의 상관을 계산하였다. 표 4에서 나타나듯이, 비몰입과 공감적 태도를 제외한 6개의 태도 문항들은 작업동맹의 3개요인들 중 유대감(Bond)요인과 유의미한 상관을 가졌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의적, 판단적, 그리고 불안정 태도 점수는 유대감 요인과 부적의 상관을 지니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강의적이고 판단적이며, 그리고 불안정할 수록 내담자는 상담자와 안정된 유대감을 갖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온정적, 수용적, 그리고 존중적 태도 점수는 유대감 점수와 정적인 상관을 지니는데, 이는 상담자가 온정적이고 수용적이며 존중적일수록 내담자가 유대감을 더 견고히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상담자 태도 문항들의 요인 분석 결과로 추출된 두 개의 요인들과 작업동맹의 3개 요인과의 관련성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요인 1과 요인 2의 점수가 계산되었는데, 요인 1의 점수는 문항 1, 2와 문항 7, 8은 서로 역상관을 보이므로, 문항 1, 2를 마이너스 점수로 바꾸고, 이것을 문항 7, 8의 점수와 합하여 구하였다. 따라서 요인 1의 점수 범위는 -8점에서 +8점에 이르며, -8점에 가까울수록 비평적인 태도가 많은 것이며 +8점에 가까울수록 내담자를 수용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많은 것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요인 2의 점수도 문항 3, 4는 마이너스 점수로 바꾸어, 이것을 문항 5, 6의 점수와 합산하였다. 따라서 -8점에 가까울수록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정서적으로 무관심하며, 비몰입되는 것이며 +8점에 가까울수록 따뜻하며 정서적으로 보살피고 내담자와 정서를 공유하려는 태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요인 1과 요인 2는 작업동맹의 유대감과 뚜렷한 상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비평적이거나

표 4. 태도문항 및 태도요인들과 작업동맹 측정치들간의 상관

	1	2	3	4	5	6	7	8	요인 1	요인 2
	강의적	판단적	불안정	비몰입	공감적	은정적	수용적	존중적	비판-존중	정서적공유
유대	-.434*	-.408*	-.383*	-.344	.322	.481**	.606**	.493**	.535**	.497**
과제	-.200	-.190	-.096	-.139	-.124	.173	.290	.296	.262	.092
목표	-.192	-.131	-.071	-.025	-.142	.152	.201	.262	.210	.017

* p < .05 ** p < .01 n=28

나 또는 정서적으로 냉담할 때 보다 존중적이거나 정서적으로 온정적이고 정서적 공유를 할수록 내담자는 유대감을 강하게 지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성된 상담자 태도 척도는 상담의 과제 및 목표 요인보다는 내담자가 지각하는 관계요인과 뚜렷이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상담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포괄적인 상담 태도들을 측정하는 상담자 태도척도를 개발하여 그 신뢰도와 타당도를 알아보는 것이었다. 이 척도는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의 하위 차원의 하나인 치료자 태도 문항을 토대로, 그리고 태도에 관한 이론적 문헌들과 상담사례 문헌들을 참고하여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작된 척도의 평정자간 평정 상관은 8개 문항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평정자간 신뢰도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태도에 관한 정의를 보다 명료하게 하고, 평정의 세부지침을 마련한 점이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

요인분석 결과를 보면 두 개의 요인구조가 확인되었다. 이 결과는 Gomes-Schwartz(1978)의 VPPS의 요인분석결과와는 다르다. 즉 VPPS에서 추출된 두 개요인은 부정적 태도요인과 긍정적 태도요인으로 서로 대조가 되는 요인구조를 지녔지만, 본 척도의 두 요인에는 각각 긍정 및 부정태도가 같이 포함되어서 한 요인으로 태도의 부정성 혹은 긍정성 정도를 설명할 수 있게 하였다. 요인 1은 '비판-존중'요인으로, 이것은 주로 내담자에 대한 상담자의 시각이 얼마나 존중적 혹은 판단적인가의 정도를 알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요인 1의 한 쪽 끝에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부정적으로 판단하거나 상담과정을 문제 중심으로 이끌어가며 내담자를 병리적으로 대하려는 태도가 있으며, 다른 한쪽 끝에는 내담자를 보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내담자의 긍정성과 자원,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있다. 요인 2는 '정서적 공유' 요인으로, 이것은 주로 내담자의 문제 및 관심에 대한 상담자의 온정적인 보살핌과 내담자의 정서에 대한 이해와 공유를 말한다. 따라서 한 쪽 끝은 내담자의 정서적 측면을 이해하고 내담자의 고통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다른 한 쪽 끝은 정서적 측면에 대한 무관심이나 내담자의 호소에 덜 몰입하는 태도를 말한다. 이 결과는 Rogerian의 치료적 조건에 해당되는 공감적 태도 및 수용적

태도와 그에 반대되는 비평적 태도 및 비몰입 태도가 이 척도에 내재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특히 요인 1은 상담자의 전체 태도를 설명함에 있어서 설명 변량이 43% 정도로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판단적이거나 존중적인 태도는 상담자의 태도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비판-존중적 태도는 상담 기술과 경력의 수준을 떠나서 내담자를 향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태도가 아닌가 싶다.

작업 동맹과 태도와 상관을 통해 검증한 준거 관련 타당성도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담자 태도 척도에서 부정적 태도에 해당되는 강의적, 판단적, 불안정적 태도는 내담자의 작업 동맹의 유대감 요인과 부정적인 상관을 지녔으며 긍정적 태도에 해당되는 온정적, 수용적, 그리고 존중적 태도는 유대감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지녔다. 즉 상담자가 판단적이고 강의적일수록 내담자는 상담자와 유대감을 더 적게 느끼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강의하고 비판하는 상담자의 개입은 반드시 피해져야 한다는 주장들(Strupp, 1973; Rogers, 1957)을 지지한다. 또한 내담자의 유대감 요인과 태도 요인1, 2의 점수들과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상담자가 판단적이거나 강의적이기 보다 수용적이고 존중적일수록 그리고 상담자가 몰입하지 못하거나 불안정할 때보다 공감적이고 온정적일수록 내담자의 유대감은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들은 상담자 변인은 내담자가 지각하는 유대감 요인뿐만 아니라 유의미한 상관을 보여준 Dunkle과 Friedlander(1996)와 Orlinsky와 Howard(1986)의 연구 결과와 일관된 것이다. 따라서 상담자태도(상담자가 제공하는 상담 분위기)는 내담자로 하여금 상담자와의 관계를 안정되고 견고히 지각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이론적

인 주장을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담자 태도 척도는 상담자 태도를 신뢰롭고 타당하게 측정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이 척도의 요인구조는 하나의 상담자 태도를 차원화하여 설명할 수 있어 임상적으로 적용 가치가 크다. 즉 VPPS처럼 하나의 태도를 좋고 나쁜 것으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요인 1과 요인 2의 점수가 양쪽 모두 부정적인지, 혹은 어느 한쪽만 부정적인지에 따라 태도의 질을 달리 평가할 수 있다. 가령, 강의적인 태도(요인 1의 부정적 태도의 상승)가 있더라도 온정적 공감적 태도(요인 2의 긍정적 태도의 상승)가 공존하는 경우는 온정적 공감적 태도가 전혀 없는 경우와 분명히 다르게 관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척도의 이러한 성질은 상담자 태도를 보다 세부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이것은 상담자 태도를 너무 단순화시켜서 설명하여 환자 변화의 기제를 면밀히 파악하기 어려운 VPPS의 한계점(Windholz 등, 1988)을 보완할 수 있는 가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치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상담자 태도의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는 아직 초보적인 단계이다. 서론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상담자 태도에 대한 본질과 구성개념을 하나 하나 명료하게 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다. 가령, 상담자의 태도는 상담자의 안정적인 성격특질을 반영하는지 혹은 내담자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속성인지가 확인됨에 따라 태도 척도의 내용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좋은(good) 상담자와 기계적인(mechanical) 상담자의 차이는 질적인 차이인지 양적인 차이가 아닐 수 있다고 하는 Strupp(1973)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도 깊은 탐색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담자 태도와 성과의 관련성

은 탐색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상담자 태도 척도의 예언 타당도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실제로 상담자 태도가 성과를 예측하는데 어느 정도의 설명력을 지니는지 밝히는 것은 상담자 태도 연구의 영역에서는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이다. 최근의 연구들(Rounsaville, 등, 1993; Winholz & Silberschatz, 1988)은 일정한 훈련 과정을 통해, 치료자의 기법의 수준을 동일하게 한 결과, VPPS의 긍정적인 태도가 증가할수록 내담자의 사회적응 수준과 내담자의 긍정적인 변화양이 증가되는 것을 밝히고 있다. 이 척도의 예언 타당도 확립을 위해서는 본 상담자 태도 척도로 측정된 상담자 태도가 어느 정도로 성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참여한 내담자 들은 주로 자발적으로 찾아온 대학생들의 제한된 표집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일정하게 편향된 상담자의 태도를 이끌 수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표집을 달리 하여 척도의 일반화에 대한 연구를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강혜영 (1995). 상담자 경력에 따른 상담협력관계의 차이분석.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 논문**.
- 김광일, 김재환, 원호택 (1984). **간이정신진단 검사 실시요강**. 서울: 중앙적성출판사.
- 조성호 (1997). 내담자 저항과 내담자 반발성, 상담자 개입 특성 및 작업동맹관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윤호균 (1983). **삶·상담·상담자**. 서울: 문지사.
- 정방자 (1998). **정신역동적 상담**. 서울: 학지사.
- Alexander, F. (1963). The dynamics of psychotherapy in the light of learning theory.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20, 440-448.
- Altman, H. A. (1973). Effects of empathy, warmth, genuineness in the initial counseling interview. *Counselor Education and Supervision*, 12, 225-228.
- Banks, W. M. (1972). The differential effects of race and social class in helping.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28, 90-92.
- Barret-Lennard, G. T. (1962). Dimensions of therapy response as causal factors in therapeutic change. *Psychological Monographs*, 76, 1-33.
- Bordin, E. S. (1979). The generalizability of the psychodynamic concept of the working alliance. *Psychotherapy: Theory, Research, and Practice*, 16, 252-260.
- Beutler, L. E., Johnson, P. T., Neville, C. W., & Workman, S. N. (1972). "Accurate empathy" and the A-B dichotom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8, 372-375.
- Bergin, A. E., & Suinn, R. M. (1975). Individual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M. R. Rosenzweig & L. W. Porter(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p. 509-556). Palo Alto, CA: Annual Reviews.
- Butler, S. F., & Strupp, H. H. (1986). Specific and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 problematic

- paradigm for psychotherapy research. *Psychotherapy*, 23, 30-40.
- Chinsky, J. M., & Rappaport, J. (1970). Brief critique of the meaning and reliability of "accurate empathy" ratings. *Psychological Bulletin*, 73, 379-380.
- Connor-Greene, P. A. (1993). The therapeutic context: preconditions for change in psychotherapy. *Psychotherapy*, 30, 375-382.
- Corey, G. (1984). Case approach to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상담과 심리치료의 제기법. 안창일, 박경 공역. 중앙적성출판사, 1995]
- Dewald, P. A. (1974). *The theory and practice of individual psychotherapy* (psychotherapy tape library의 녹음). 김기석 역.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Duan, C., & Hill, C. E. (1996). The current state of empathy research.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261-274.
- Dunkle, J. H & Friedlander, M. L. (1996). Contribution of therapist experience and personal characteristics to the working alliance.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3, 456-460.
- Eysenck, H. J. (1952). The effect of psychotherapy. An evaluation.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16, 319-324.
- Fischer, J., Paveza, G. J., Kickert, N. S., Hubbard, L. J., & Grayston, S. B. (197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oretical orient and therapists' empathy, warmth, and genuinenes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2, 399-403.
- Garfield, S. L., & Bergin, A. E. (1971). Therapeutic conditions and outcom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77, 108-114.
- Gladstein, G. A. (1983). Understanding empathy: Integrating counseling, developmental, and social psychology perspective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0, 467-482.
- Gladstein, G. A. (1987). Counselor empathy and client outcome. In G. A. Gladstein & Associates(Eds.), *Empathy and counseling: Explorations in theory and research*. New York: Springer-verlag.
- Goldfried, M. R. (1982). Resistance and clinical behavior therapy. In P. L. Wachtel(Ed.), *Resistance: Psychodynamic and behavioral approaches*. New York: Plenum Press.
- Gomes-Schwartz, B. (1978). Effective ingredients in psychotherapy: prediction of outcome from process variab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1023-1035.
- Gomes-Schwartz, B., Hadley, S. W., & Strupp, H. H. (1978). Psychotherapy and behavior therapy. I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Palo Alto, Calif. : Annual Reviews.
- Greenson, R. (1967). *The technique and practice of psychoanalysi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rtley, D. E., & Strupp, H. H. (1983). The therapeutic alliance: Its relationship to outcome in brief psychotherapy. In J. Masling, (Ed.), *Empirical studies in analytical theories*(Vol. pp. 1-37). Hillsdale, NJ: Erlbaum.
- Henry, W. P., Schacht, T. E., Strupp, H. H., Butler, S. F., & Binder, J. L. (1993). Effects of training in time-limited dynamic psychotherapy: Mediators of therapists' responses to trai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1*, 441-447.
- Horvath, A. O., & Greenberg, L. S. (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working alliance inventor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36*, 223-233.
- Jones, E., Wynne, M. F., & Watson, D. D. (1986). Client perception of treatment in crisis intervention and longer-term psychotherapies. *Psychotherapy, 23*, 120-132.
- Lambert, M. J., & Bergin, A. E. (1992).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of psychotherapy research. In D. K. Freedheim(Ed.), *History of psychotherapy: A recent change*(pp. 360-390).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Luborsky, L. (1984). *Principles of psychoanalytic psychotherapy: A manual for supportive-expressive (SE) methods*. New York: Basic.
- Morgan, R., Luborsky, L., Crits-Christoph, P., Curtis, H., & Solomon, J. (1982). Predicting the outcome of psychotherapy by the penn Helping Alliance Rating Method.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39*, 397-402.
- O'Malley, S. S., Suh, C. S., & Strupp, H. H.(1983). The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ort on the scale development and a process outcome stud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 581-586.
- Orlinsky, D. E., & Howard, K. I. (1986). Process and outcome in psychotherapy.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3rd ed., pp. 311-381). New York: Wiley.
- Parloff, M., Waskow, I., & Wolfe, B. (1978). Research on therapist variable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s. L. Garfield & A. E. Bergin(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An empirical analysis* (2nd ed., pp. 233-282). New York: Wiley.
- Patterson, G. R., & Forgatch, M. S. (1985). Therapist behavior as a determinant of client noncompliance: A paradox for the behavior modifier.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3*, 846-851.
- Remer, P., Roffey, B. H., & Buckholtz, A. (1983). Differential effects of positive versus negative self-involving counselor responses. *Journal of*

- Counseling Psychology*, 30, 121-125.
- Rogers, C. (1942). Counselling and psychotherapy: Newer Concepts in Practice. [칼로저스의 카운슬링의 이론과 실제. 한승호, 한성열 공역. 학지사, 1998]
- Rogers, C. R. (1957). The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f therapeutic personality change.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1, 95-103.
- Rounsaville, B. J., Chevron, E. S., Prusoff, B. A., Elkin, I., Imber, S., Sotsky, S., & Watkins, J. (1987). The relation between specific and general dimensions of the psychotherapy process in interpersonal psychotherapy of depression.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5, 379-384.
- Strean, H. H. (1985). *Resolving resistances in psychotherapy*. New York: John Wiley & Sons, Inc.
- Strupp, H. H. (1973). On the basic ingredients of psychotherap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8.
- Strupp, H. H. (1973).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as a vehicle for therapeutic learning.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1, 13-15.
- Strupp, H. H. (1980). Success and failure in time-limited psychotherapy. A systematic comparison of two cases: comparison 1. *Arch Gen Psychiatry*, 37, 595-603.
- Strupp, H. H., & Hadley, S. W. (1979). Specific vs Nonspecific Factors in Psychotherapy. *Arch Gen Psychiatry*, 36, 1125-1136.
- Truax, C. B., & Carkhuff, R. R. (1967). *Toward effective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Chicago, Aldine.
- Truax, C. B., & Mitchell, K. M. (1971). Research on certain therapist interpersonal skills in relation to process and outcome. In A. E. Bergin & S. L. Garfield (Eds.), *Handbook of psychotherapy and behavior change*. New York: Wiley.
- Windholz, M. J., & Silverschatz, George. (1988). Vanderbilt psychotherapy process scale: A replication with adult outpati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56-60.
- Wolpe, J. (1969).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 Elmsford, N. Y. : Pergamon Press.
- Wolpe, J. (1973). *The practice of behavior therapy*(2nd Ed.). New York : Pergamon Press Inc.
- Zetzel, E. R. (1956). Current concepts of transferenc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37, 369-376.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Study of Counselor Attitude

Hee-Kyung Kwon

Department of Psychology, Kore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examine a scale for measuring the attitudes of the counselors in pantheoretical perspectives. The 8 items Counselor Attitudes Scales was rated by trained raters for 171 counseling segment of 5 minutes uni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raters' reliability coefficient(r) was very high ($r=.72\sim.90$), and factor analysis revealed two factors of this scale, critical/respectful factor and emotional sharing factor. Also two factor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bond factor of client working alliance. This indicated that the counselor was more respectful and more emotional sharing, the more client percepts bonding with counselor.

부 록

상담자 태도 척도

평정자들은 해당 단락의 녹음을 듣고 축어록을 읽은 후, 해당 단락에 대해 다음의 8개 문항을 각각 평정합니다. 다음 문항을 읽고 그 정도에 따라 0점부터 4점까지 체크하십시오.¹⁾ 가능한 한 추론을 피하고 정의와 세부준거들에 기초하여 평정해야 합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좋은 상담자 혹은 나쁜 상담자의 태도들에 관한 견해들이 첨가되지 않도록 합니다.

문항정의와 세부준거

1. 강의적(Lecturing) : 선생같은, 가르치는, 일방적인 상담자는 마치 선생님의 입장에서 내담자를 가르치려는 듯 하다.

1) 자신의 견해나 도덕적 기준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듯 하다.

2) 상담자는 특정사실이나 정보를 제공하면서 내담자를 가르치고자 한다.

3) 상담자는 상호작용적 의사소통의 방식보다는 일방적인 의사소통 방식으로 조언을 하거나 해결방안을 제안한다.

4)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논리적 설명을 하거나 합리적이 이유를 대어 설득한다.

2. 판단적(Judgemental) : 평가적인, 비판적인, 암묵적으로 비난하는, 판단하는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 믿음 태도, 그리고 행동 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말한다.

1) 상담자는 내담자의 문제 및 행동에 대한 판단적, 평가적 진술이나 질문을 한다.

2) 부정적인 방식으로 직면한다. 즉 공격적, 비난적, 혹은 도전적인 방식이 드러난다.

3) 상담자는 내담자가 문제를 인정할 수 있도록 추궁하는 어조로 반복적인 질문을 한다.

4) 내담자의 행동과 태도들에 대한 상담자의 관찰과 언급은 결점을 찾아내는 식이거나 내담자를 탓하는 어조가 있다.

5) 내담자의 행동, 의도, 감정, 사고들에 대하여 반대를 포함하는 상담자의 진술들이 있다.

3. 불안정적(Unstable) : 불안정한, 긴장되어 있는, 예매한, 조심스러운 상담자는 상담과정에서 자신감과 안정감이 결여되어있고, 내담자의 문제, 행동, 태도에 대하여 불편감을 느끼거나 혼란된다.

1) 긴장되어 있고 조심스럽다. (말의 어조에서 알 수 있는데, 즉 말끝을 흐리거나, 목소리가 너무 작고 조심스럽거나 너무 커서 흥분되어 있는 듯하다.)

2) 어색하고 부적절한 웃음이나 한숨 등의 반응이 있다.

2) 상담자의 언어적 진술은 애매하고 장황하여 명료한 전달이 안되는 듯하다. (말의 내용)

3) 자신의 행동이나 반응에 대하여 정당화하거나 변명식의 진술이 있다. (말의 내용)

4) 혼란스러워 하고 우유부단하고 양가적인 태도들이 드러난다. (말의 내용)

4. 비몰입적(Uninvolved) : 집중하지 않는, 거리를 두는, 열중하지 않는, 피상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의 마음, 그리고 내담자의 현재 주요한 문제와 고통에 대하여 떨어져 있고 소극적이다.

*) 0년부터 4번까지의 평정기준은 문항에 따라 약간 다르다. 예) 5번 문항- 4점; 상담자가 충분히 내담자의 중요한 정서를 이해하고 그것을 전달하고 공유하려는 태도가 전반적으로 드러날 때(공감의 깊이와 양이 충분하다) (공감적 해석). 3점; 공감의 깊이가 깊거나, 혹은 공감의 빈도나 양이 많을 때 (반영). 2점; 간헐적으로 공감적 반응을 보일 때(정서적인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을 그대로 재언급하거나 수용하여 정서에 초점을 둔다. 1점; 내담자의 정서에 관심을 갖고 그것과 관련된 측면을 질문하거나 언급. 0점; 정서적인 부분보다 내용적 사실적 부분에 초점을 둔다. 전혀 정서적 단어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1) 내담자가 보고하는 주관적인 고통이나 문제들에 대하여 별 주의를 기울이지 않거나 가볍게 혹은 피상적으로 다룬다.

2) 상담자는 내담자의 말에 집중하지 못하는 듯 하다. 이것의 단서는 상담자가 내담자의 중요한 경험들을 부각 시키지 못하고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3) 상담자는 내담자의 중요한 정서와 호소에 몰입되지 않아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4) 상담의 목적과 위배되는 내담자의 반응들(즉 침묵, 무관한 얘기, 등의 저항적 반응)이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개입 없이, 그 상태를 계속 유지해나가고 있다.

5. 공감적 (Empathic) : 감정을 이해하는, 공유하려는, 감정에 관심을 두는 내담자의 감정과 정서를 지각하고, 이를 내담자와 함께 공유하려고 한다.

1) 상담자는 내담자가 표현한 감정과 느낌들을 재언급하거나 이를 부각시키고 나누려고 한다.

(정서적 용어나 그것을 시사하는 단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내담자의 구체적인 감정을 언급하여 충분히 그렇게 느낄 수 있음을 표현한다.

3) 내담자가 표현한 정서와 본질적으로 같은 정서를 보다 명료하고 생생한 단어로 반영한다.

4) 내담자가 표현한 것 보다 조금 더 깊은 내면적인 감정이나 욕구를 부각시키고 이를 공유한다.

5) 내담자의 진술에서 정서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지는 않을지라도 시사되는 감정이나 정서를 상담자가 반영하고 그것을 같이 느끼려고 한다.

6. 온정적 (Warmth) : 따뜻한, 친절한, 온정적인, 우호적인, 지지적인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우호적이며 친절하고 따뜻하며, 내담자 걱정과 관심사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보낸다.

1) 따뜻하며, 우호적이다; 상담자의 어조는 부드럽고 편안하며, 내담자의 요구와 질문에 대해 친절하고 자상하게 반응한다.

2) 내담자의 말을 열심히 듣고 단순한 수용적 반응들과 단순한 격려의 반응들 (네에, 으흠, 그래, 계속하세요 등)을 한다.

3) 내담자의 고통과 걱정, 염려에 대하여 안심과 위로의 내용이 포함된 표현을 한다.

4) 내담자가 원하는 바람들과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한다.

5) 상담자는 상호작용에서 상호성의 느낌을 추구한다. 가령, "우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내담자와의 동맹감을 전달한다.

7) 수용적 (Acceptance) :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수용적인, 동의하는 내담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이해해주려고 한다.

1) 상담자는 내담자의 정서상태나 욕구 및 사고 등에 대해서 동감을 표현한다.

2) 내담자의 특정 행동이나 태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반듯이 적응적인 양식으로 생활 사건을 다룰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3) 승인적인 반응을 한다. 즉 내담자의 행동과 경험들, 현재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하여 수용하고 때론 동의하고 인정한다.

8. 존중적 (Respectful) : 긍정적인, 존중적인, 인정하는, 내담자를 보다 긍정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며, 존중하려고 한다.

1) 내담자가 미처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의 자원과 장점을 부각하며, 이를 자각시키려고 한다.

2) 내담자의 독특성과 내담자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그것에 대한 인정 및 존중의 표현을 한다.

3) 내담자의 기본적인 욕구를 긍정적인 관점에서 다루며 성장동기들을 다룬다.

4) 상담과정에서 드러나는 내담자의 좋은 점들을 인정하고 강화한다.

5) 내담자의 자부심이나 긍정적인 자기 진술에 대해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더 깊이 탐색하려고 한다.